



# 가장 믿을 만한 언어 지식을 집대성한 책, 사전을 만드는 사람들

국어원 소식(1)  
당신의 말과 글, 인공지능에게 소중한 자원입니다

실전 띄어쓰기(1)  
'겸, 대, 및, 내지, 등'-이어 주거나 열거할 때 쓰는 말 띄어쓰기

쉽게 읽는 문법 용어(1)  
국어학의 다양한 분야

표준어 바깥의 세상  
능쪽과 능지

말뭉치로 바라보기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우리말 다듬기(1)  
'한말 방송' 보고 쉬운 우리말 찾기! 2탄

실전 띄어쓰기(2)  
온갖 데 다녀 봤는데, 집만 한 데가 없네!-데 띄어쓰기

쉽게 읽는 문법 용어(2)  
어미의 종류(1)

국어정책 통계  
어떤 국어사전을 원하세요?

우리말 다듬기(2)  
나를 채우는 시간-채움 기간

국어원 소식(2)  
'고추장아찌'를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표현하려면?



국립국어원

국립국어원 온라인 소식지  
심표, 마침표. | 2020. 7.

# 목차

심표, 마침표. | 2020. 7.

## 국어 배우기

- 2 쉽게 읽는 문법 용어 국어학의 다양한 분야
- 6 어미의 종류(1)
- 10 표준어 바깥의 세상 능쪽과 능지
- 14 실전 띄어쓰기 '겸, 대, 및, 내지, 등' 이어 주거나 열거할 때 쓰는 말 띄어쓰기
- 16 온갖 데 다녀 봤는데, 집만 한 데가 없네! - 데 띄어쓰기

## 국어 알리기

- 18 국어원 소식 당신의 말과 글, 인공지능에게 소중한 자원입니다
- 20 '고추장아찌'를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표현하려면?
- 24 국어정책 통계 어떤 국어사전을 원하세요?
- 28 우리말 다듬기 '한알 방송' 보고 쉬운 우리말 찾기! 2탄
- 30 나를 채우는 시간-채움 기간

## 국어로 바라보기

- 32 말뭉치로 바라보기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 38 우리말 그리고 사람 가장 믿을 만한 언어 지식을 집대성한 책, 사전을 만드는 사람들

## 국어로 함께하기

- 46 기획 행사 '한알 방송' 보고 쉬운 우리말 찾기 2탄 당첨자 발표
- 48 독자 만족도 설문 조사
- 50 우리말 풀기 독자 참여 행사



# 국어학의 다양한 분야



글. 이선웅 (경희대학교 외국어대학 한국어학과 교수)

연재의 첫 번째 글에서 ‘문법’이 의미하는 바를 매우 간략한 수준에서 설명한 바 있다. 그 글에서는 독자를 위해 문법을 넓은 개념과 좁은 개념으로만 나누어 이분법으로 설명하였으나, 사실 문법은 좀 더 다층적이다. 앞으로 선보일 글들의 내용을 잘 이해하려면 문법 개념의 다층성을 이해하고 그와 관련된 용어를 알아 두는 것이 좋다.

- (1) 문법 1: 어휘나 문장의 축자적/맥락적 의미를 포함한, 언어 관련 모든 내용
- (2) 문법 2: 발음, 단어의 형태, 표기 방식, 문장의 구성 원리 등 언어의 규칙
- (3) 문법 3: 단어의 형태, 문장의 구성 원리
- (4) 문법 4: 문장의 구성 원리

문법 개념의 다층성을 설명하기 전에 ‘문법’이라는 말의 중의성을 알 필요가 있다. 문법은 언어에 내재한 규칙 그 자체를 의미하기도 하고, 그 규칙을 이론화하여 기술해 놓은 설명을 의미하기도 한다. 특히 뒤엣것을 ‘문법론’이라고 ‘-론(論)’을 붙여 용어를 구별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위의 (1)~(4)의 개념 설명에서 모두 맨 마지막에 ‘혹은 그에 대한 설명’이 생략된 것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예컨대 (4)는 ‘문장의 구성 원리 혹은 그에 대한 설명’으로 이해하면 된다.

가장 범위가 넓은 (1)은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말해 왔던 ‘문법’으로서 2015 교육과정부터는 ‘언어와 매체’에서 ‘언어’라고 불리고 있는 것이다. 우리말글에 적용된 (1)을 그냥 ‘국어학’이라고 이해해도 무방하다. 첫 호에서 ‘결재(決裁)’와 ‘결제(決濟)’가 뜻이 다른 어휘라고 설명하는 것은 (1)에 해당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어휘의 의미 자체가 그런 것이어서 그것을 설명하는 것일 뿐 언어의 규칙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다.

어휘나 문장의 의미를 설명하는 분야를 ‘의미론’이라고 하는데, 더 나아가 말과 글의 상황 맥락이나 앞뒤 문맥에 따라 달라지는 의미의 해석을 다루는 분야를 ‘화용론’이라고 한다. 의미론과 화용론은 (1)에는 포함되지만 (2)~(4)에는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대개 포함되지 않는다.

(2)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언어의 ‘규칙’이 된다. 가령 각각 다른 형태소에 속해 있던 ‘ㄷ’과 ‘ㅣ’가 만나면 ‘디’가 아니라 ‘지’로 발음된다는 사실은 규칙이다. 더 작게는 ‘ㅂ’을 두 입술 사이에서 발음해야 하고 두 입술을 닫았다가 터뜨리면서 발음해야 한다는 개별 자모 발음법도 규칙이다.

이처럼 발음과 관련한 모든 규칙을 설명하는 분야를 ‘음운론’이라고 한다. ‘음운’은 말소리의 최소 단위인데, 음운이 무엇인지는 다음 호에서 자세히 설명할 것이므로 여기에서는 음운론이라는 용어만을 알아 두면 된다.

언어의 규칙에는 단어의 형태 규칙도 있다. 단어의 형태 규칙이란 단어의 구조나 단어의 형성 원리를 말하는 것인데, 이를 설명하는 분야를 ‘형태론’이라고 한다. 단어를 이루는 기본 단위가 형태소임을 중시한 용어이다. 어근에 접사를 붙여 파생어를 만든다든가 어근과 어근을 결합하여 합성어를 만든다든가 하는 것 자체가 우리말의 규칙이다.

또 규칙이 지니는 제약까지도 규칙의 일부이다. 예컨대 아무리 첫 글자만 모은 준말을 많이 쓴다고 해도 ‘축구 경기’를 ‘\*축경’이라고는 하지 않는 제약이 있다. 표기 방식은 첫 호에서 ‘규범 문법’이라고 하였다. 우리는 우리말의 말소리를 한글 맞춤법에 따라 표기하는 방식을 교육받아 그렇게 쓰고 있다. 그러나 한국어 모어 화자라도 교육을 받지 못하면 표기를 잘 못하거나 아예 못할 수 있는데, 이는 표기 방식이 모어 화자의 당연한 지식이 아닌 배워야 하는 규범 문법이기 때문이다.

문장의 구성 원리란 문장의 구조나 문장의 형성 원리를 말하는 것인데, 이를 설명하는 분야를 ‘통사론’이라고 한다. ‘통사(統辭)’란 거시적인 시각에서 말들을 엮는다는 뜻이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완전한 문장 단위가 아니고 문장의 일부분만 다루어도 문장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설명한 것이므로 통사론의 설명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예컨대 ‘낮잠의 효능’은 그 자체로 문장은 아니지만 ‘관형어+명사’의 구성으로서 통사론의 설명 대상이 된다.

요약하면, 문법의 가장 좁은 개념은 (4), 곧 통사론이고, 그다음은 (3), 곧 형태론과 통사론을 합한 개념이다. 일반적으로 문법학자들은 형태론과 통사론을 합한 개념을 가리켜 ‘문법론’이라고 한다. (2)는 더 폭넓은 개념이고 (1)은 가장 넓은 개념으로서 국어과 교육과정 외에서는 잘 사용되지 않는다.

## 국어학의 다양한 분야, 다시 정리해 볼까요?

- (1) **의미론:** 어휘나 문장의 의미를 설명하는 분야
- (2) **화용론:** 말과 글의 상황 맥락이나 앞뒤 문맥에 따라 달라지는 의미의 해석을 다루는 분야
- (3) **음운론:** 우리말의 일반적인 발음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활용
- (4) **형태론:** 우리말의 일반적인 발음 현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활용
- (5) **통사론:** 문장의 구조나 문장의 형성 원리를 설명하는 분야
- (6) **문법론:** 일반적으로 형태론과 통사론을 아우르는 말

# 어미의 종류(1)



글. 이선웅 (경희대학교 외국어대학 한국어학과 교수)

이번 호에서는 조사와 함께 우리말의 대표적인 문법 형태소라고 할 수 있는 어미(語尾)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먼저 아래 예문을 보자.

(1) 비는 왔지만, 바람은 안 불었다.

(2) -왔/였-, -지만, -다

(1)에서 동사 ‘먹-’의 활용 어미를 떼어 낸 것이 (2)에 보인 ‘-왔/였-, -지만, -다’이다. 이 3개를 두 종류로 나누면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형태를 보면 ‘-왔/였-’과 ‘-지만, -다’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왔-’은 앞뒤에 다른 말이 오지만, ‘-지만’과 ‘-다’는 앞에만 다른 말이 올 수 있기 때문이다.

가령 (1)의 ‘불었다’에서 ‘-왔-’ 앞에는 ‘불-’이 있고 뒤에는 ‘-다’가 있지만, ‘-다’ 뒤에는 아무것도 없고 앞에만 ‘-왔-’이 있다. 즉 ‘-지만’과 ‘-다’는 단어의 맨 마지막에 오는 어미이고, ‘-왔/였-’은 그 앞에 오는 어미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앞엿것을 어말(語末) 어미라고 하고, 뒤엿것을 선어말(先語末) 어미라고 한다.

‘어말’은 단어의 끝부분이라는 뜻이고 ‘선어말’은 어말의 앞부분이라는 뜻이다. 이렇게 어미는 우선 어말 어미와 선어말 어미로 나눌 수 있다. 그런데 잘 보면 ‘-지만’과 ‘-다’는 다른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는 단어의 끝부분이기도 하면서 문장 끝부분에도 오는 어미인 반면에 ‘-지만’은 문장의 끝부분에 오는 어미는 아니다. 그래서 ‘-다’와 같이 문장을 종결하는 어미를 종결 어미라고 하고, ‘-지만’과 같이 문장 종결의 기능이 없는 어미를 비종결 어미라고 한다. 어말 어미는 종결 어미와 비종결 어미로 나눌 수 있다.

(3) 형은 누나가 먹는 음식을 만들었고, 나는 동생이 먹는 음식을 만들었다.

이제 (3)을 통해 좀 더 복잡한 문법을 보도록 하자. (3)에서 어말 어미는 ‘-고, -다’가 있고 선어말 어미는 ‘-았-’이 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그런데 잘 들여다보면 (3)에는 밑줄 부분의 ‘먹는’에 ‘-는’이 더 들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는’도 단어의 맨 끝에 나타나므로 어말 어미이고, 문장을 종결하지 않으므로 비종결 어미이다.

그러면 어말 어미이면서 비종결 어미인 ‘-고’와 ‘-는’이 같은 종류의 어미인가? 일단 그렇기는 한 것 같은데도 ‘-고’와 ‘-는’은 왠지 다른 종류의 어미인 것처럼 느껴진다. ‘-고’는 주어와 서술어를 갖춘 앞뒤 문장을 연결해 주는 반면에 ‘-는’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3)은 ‘누나는 형이 먹는 음식을 만들었다.’라는 문장과 ‘나는 동생이 먹는 음식을 만들었다.’라는 문장이 ‘-고’로 연결되어 있는 것인데, 이처럼 앞뒤 문장을 연결하여 한 문장으로 만들어 주는 어미를 연결 어미라고 한다. ‘-는’은 그런 기능이 없는데, 그럼 ‘-는’은 무엇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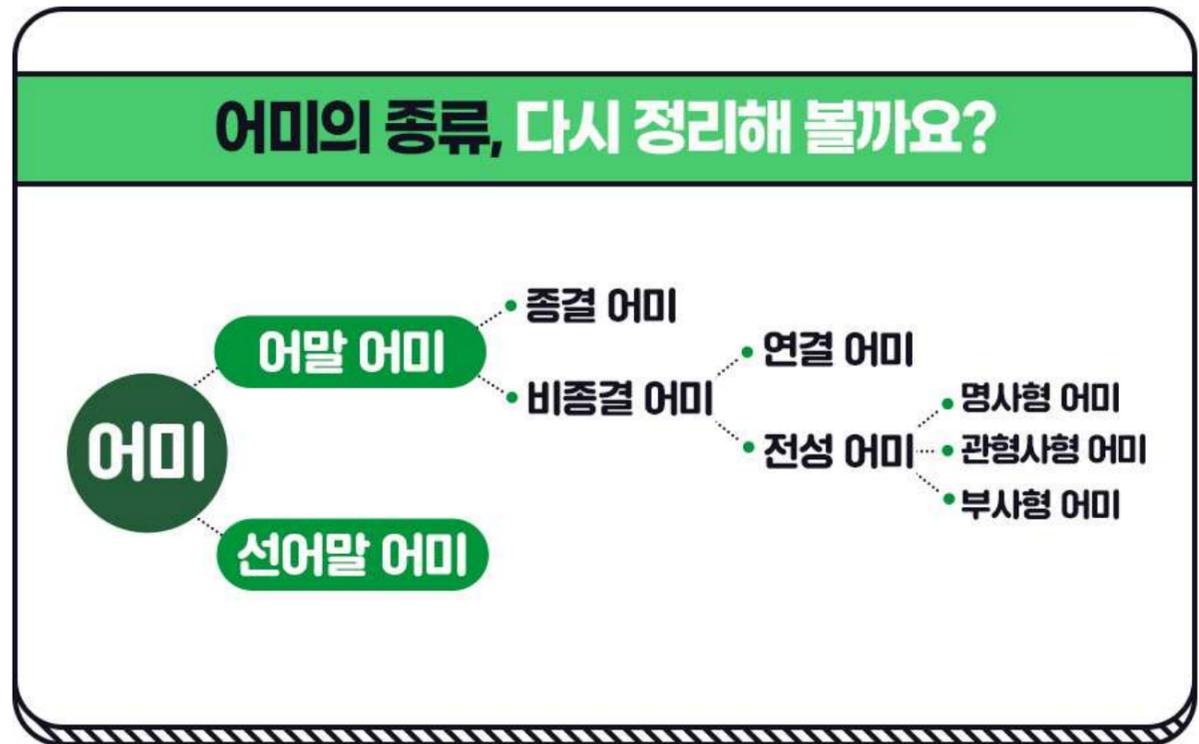
- (4) 나는 그가 갔음을 알고 있다.
- (5) 나는 사실을 알고 있다.
- (6) 너는 아기가 잘 자게 자장가를 불러라.

(3)의 '-는'에 대해 설명하기 전에 먼저 (4)와 (5)를 비교해 보자. '그가 갔음'이 '사실'과 같은 자리에서 '을'이 붙어 목적어로 쓰이고 있으므로 '그가 갔음'이 명사 '사실'과 같은 자격을 가졌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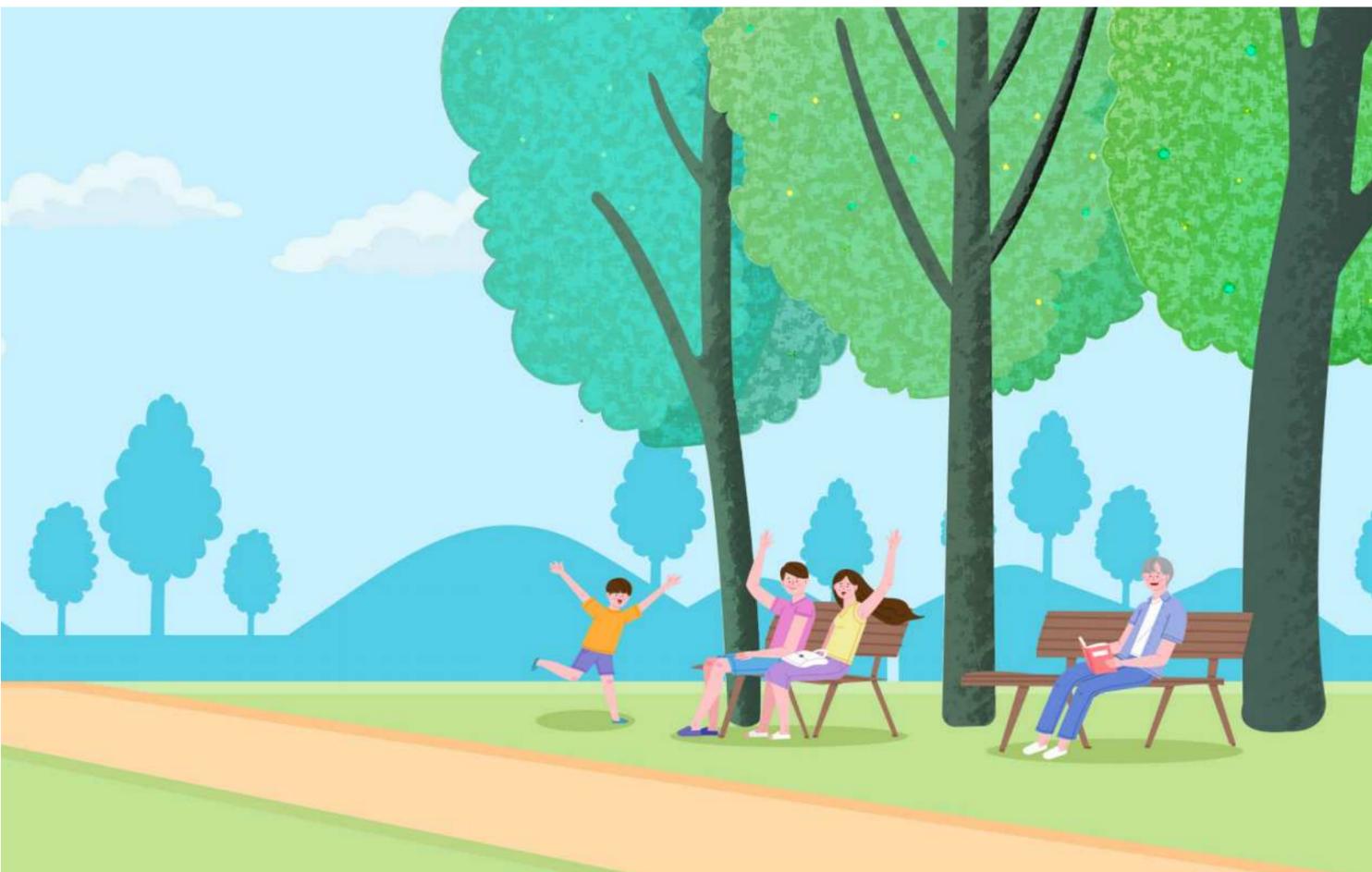
그래서 '-음'을 명사형 어미라고 한다. 이와 유사하게 (3)의 밑줄 부분은 뒤의 체언을 꾸며 주는 관형사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는'을 관형사형 어미라고 한다. (6)의 밑줄 부분은 '자장가를 불러라'라는 말을 꾸며 주는 부사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게'를 부사형 어미라고 한다.

이들 어미의 공통점은 모두 문장이었던 말을 명사처럼, 관형사처럼, 부사처럼 쓰게 해 준 것이다. 그래서 이들을 모두 전성(轉成) 어미라고 한다. 전성이란 성격을 바꾸어 준다는 뜻이다.

이제 같은 비종결 어미이지만 연결 어미와 전성 어미의 차이점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어미의 종류는 문장의 구조나 다양한 문법적 요소들의 기능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어야 더 깊이 설명할 수 있다. 아쉽지만 어미의 종류에 대한 좀 더 상세한 글은 한참 뒤에 다시 선보이도록 한다.



## 능쪽과 능지



글. 이길재(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회)

- 마당 한구석 그나마 햇빛이 들지 않는 **{능쪽에}** 병풍을 치고 시신을 모셔두었는데 열한시도 되지 않아 마당은 다글다글 햇빛이 끓어오르고 있었다. 《하성란(2008): 그 여름의 수사》(남한)
- 요새 더 **{능지의}** 오물통에서 썩으며 돌는 곰팡이처럼 때도 장소도 가리지 않고 나타나는 광고장들이었다. 《리복은(1986): 암운》(북한)

‘능쪽’은 ‘햇빛이 들지 않는 쪽’을 나타내는 방언이다. 표준어 ‘음지쪽’에 해당하는 말이다. ‘능지(-地)’는 ‘별이 잘 들지 않는 그늘진 곳’을 가리키는 말로, 표준어 ‘음지(陰地)’와 같다. 아래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양달쪽과 양지쪽’과 ‘응달쪽과 음지쪽’은 표준어와 문화어가 다르지 않다. 그런데 ‘능쪽’과 ‘능지’는 남한에서는 표준어가 아니지만 북한에서는 문화어로 다루어지고 있다. ‘양지쪽’과 ‘능달’도 그러하다.

뜻	표준어	문화어
별이 잘 드는 쪽	양달쪽, 양지쪽	양달쪽, 양지쪽, 양지쪽
별이 잘 들지 않는 쪽	응달쪽, 음지쪽	응달쪽, 음지쪽, 능쪽
별이 바로 드는 곳	양달, 양지	양달, 양지
별이 잘 들지 않는 그늘진 곳	음달, 음지	음달, 음지, 능달, 능지

- 태남이는 손수 딸의 관을 짜고 제일 좋은 옷으로 갈아입혀 뒷산 **{양지쪽에}** 고이 묻었다. 《박완서(1990): 미망》(남한)
- 그렇게 **{양지쪽에}** 옆드려 있으면 스르르 잠이 들어, 마냥 잘것만 같았으나, 하는 더욱 군모를 눌러쓰고 무슨 생각엔지 잠겨갔다. 《김영석(1955), 이청년을 사랑하라》(북한)
- 실참에 농장원들은 **{능달이}** 든 나무아래에 모여서 오락회를 열었다. 《조선말대사전(2017)》
- 매매네는 양지동산에 새집을 짓고 곱슬이네는 **{능지}** 동산에 새집을 지었답니다. 《전병두(1988): 동화언어형상과 감정적 뜻빛갈을 가진 어휘》(북한)

‘능쪽’, ‘능지’, ‘능달’ 등에서 ‘능’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

- 그 **{낭반}** 형님의 거문고도 들어 보고 그 **{낭반의}** 피리도 들어 봤지요. 그 **{낭반이}** 피리에는 귀신이에요. 《홍명희(1939): 임궫정》

국어에서 ‘ㄹ’은 어두에 올 수 없다는 제약 때문에 ‘량반>낭반>양반’과 같은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그런데 원래부터 ‘ㅇ’이었는데 이것이 본래 ‘ㄹ’이나 ‘ㄴ’이었을 거라고 오해해서 이 ‘ㅇ’을 ‘ㄹ’이나 ‘ㄴ’으로 고쳐 쓰는 경우가 있다. 언어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과도 교정(過度校正)’<sup>1)</sup>이라고 한다.

‘능지, 능달’ 등의 표기가 나타나게 된 것은 바로 과도 교정의 결과이다. 즉, ‘응지, 응달’의 원형이 ‘능지, 능달’일 것으로 잘못 알고 쓴 것이 널리 퍼지게 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뜻이다.

1) 과도 교정: 일정한 언어 사회에서, 어떤 어형을 규범에 맞게 적으려다가 오히려 부정확한 형태로 고치게 되는 일. 《우리말샘》

- 이 지방의 자연지명에서는 아직도 《덜골》(절골), 《**낭디말**》(**양지말**) 같은 방언이 더러 쓰이고 있는데서 그것을 알 수 있다. 《최완호(1997): 자연지명의 방언을 두고》(북한)
- 한 농장안에서도 별이 다르고 비탈진데가 다르며 **{능지쪽과}** 양지쪽이 다르고 이 골짜기가 다르고 저 골짜기가 다르다. 《조영찬(1990): 주체농법을 관철한 보람》(북한)
- 유독 원술이네 멍멍이는 주인이 노루를 따르고 있는데 신이 나서 무슨 변이 난 듯이 짓어대며 뜨락을 나서고 삼수천을 건너 **{능달쪽}** 산봉을 향하여 내달리고 있다. 《리병수(1981): 붉은 지평선》(북한)
- 아직도 숲속 **{능달지에는}** 눈무지가 흰곰처럼 웅크리고 있었다. 《감자꽃》(북한)

위에 제시된 용례들은 모두 북한에서 쓰인 것이다. 아래 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양지’, ‘음지’와 관련된 어휘들은 남한어에 비해 북한어에서 훨씬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뜻	남한	북한
별이 잘 드는 쪽	-	남석쪽, 낭달귀, 낭디괘, 낭디짜, 남석쪽, 낭짜, 낭쪽, 낭디쪽, 양디쪽
별이 잘 들지 않는 쪽	엄지쪽	녕디쪽, 능달쪽, 능짜, 능지쪽, 영지짜, 울디짜
별이 바로 드는 곳	-	남세기, 남쇠기, 낭디, 낭달/냥달, 백달
별이 잘 들지 않는 그늘진 곳	엄지, 영지, 움지, 응지	녕디, 능달지, 능디, 능지, 성지, 승지, 울디, 움디, 움지

위 표에서 남한의 ‘엄지, 영지, 움지, 응지’와 북한의 ‘울디, 움디’는 모두 한자어 ‘음지(陰地)’의 변이형들이다. 그리고 북한어에서만 나타나는 ‘남석쪽, 남석쪽, 남세기, 남쇠기’는 한자어 ‘남석(南夕/南席)’과 관련되어 있는데, 《조선말대사전》에서 ‘남석’은 ‘해별이 잘 드는 남쪽으로 구석진 땅’으로 풀이되어 있다.

‘남쇠기, 남세기’는 ‘남석’에서 변한 ‘남속’에 접사 ‘-이’가 결합된 말인 것으로 보인다. ‘남속+이>남소기>남쇠기>남세기’와 같은 소리의 변화를 겪은 것이다. ‘백달’은 한자어 ‘백(白)’이 결합된 것으로 보이며, ‘성지’와 ‘승지’는 한자어 ‘상(霜)’이 결합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확실하지는 않다.

요즘 남북 관계가 심상치 않다. 남북 관계가 ‘능지’에서 벗어나 ‘낭지’로 펼쳐졌으면 하는 바람을 이 땅에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싶을 따름이다.

# '겸, 대, 및, 내지, 등' 이어 주거나 열거할 때 쓰는 말 띄어쓰기

## 실전 띄어쓰기



실전 띄어쓰기

'겸, 대, 및, 내지, 등' 이어 주거나 열거할 때 쓰는 말 띄어쓰기

이번 여름 휴가는 안전하게 보낼 겸 집에서 꼭 쉬어야지!

불쾌지수가 70 내지 80 이상이 되면 불쾌감을 느껴요!

모기 및 파리 각종 여름 해충 물러가라!

열대야, 모기, 냉방병, 불쾌지수 등등 올해도 어김없이 여름철 불청객들이 찾아왔어요.

실전 띄어쓰기

국립국어원

물냉면 대 비빔냉면 어느 쪽이 좋아요?

몸보신할 겸 점심으로 삼계탕은 어때요?

시원한 수박을 먹다 보면, 더위 따위 두렵지 않아요!

수박은 주로 무등산, 고창, 함안 등지에서 재배된 수박이 유명해요!

시원한 냉면 또는 몸보신 음식을 먹으며 여름을 즐기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겠죠?

'겸, 대, 및, 등, 따위' 처럼 두 말을 잇거나 열거할 때 쓰는 말은 별개의 단어이므로 띄어 써야 해요.

실전 띄어쓰기

국립국어원

· 이어 주거나 열거할 때 쓰는 말 띄어쓰기 ·

**이럴 때 띄어주세요!**

두 말을 이어 주거나 열거할 때 쓰는 말은 품사도 다르고, 뜻도 다르지만 모두 띄어 씁니다.

- 집에서 실 겸 / 아침 겸 점심
- 무더위 따위 / 포도, 수박, 참외 따위의 여름 과일
- 물냉면 대 비빔냉면 / 5 대 4
- 선풍기, 수박, 삼계탕 등
- 열대야, 냉방병, 불쾌지수 등등 / 무등산, 함안 등지

모기, 파리 및 여름 해충

열 내지 스물 / 수박 또는 참외 / 선풍기 혹은 부채

실전 띄어쓰기

국립국어원

멀리 떠날 수 없다면 시원한 집에서 소설책 읽기 또는 영화 보기!

올여름, 띄어쓰기 및 문법 공부도 해 보면 어떨까요?

# 온갖 데 다녀 봤는데, 집만 한 데가 없네! 데 띄어쓰기

## 실 전 띄 어 쓰 기



안전하게 더위를 피하는 데에는  
집만 한 데가 없겠조?  
취미를 즐기며 휴식을 취하기에도 좋고요.

'데' 띄어쓰기를 헛갈려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데'를 바르게 띄어 쓰려면  
의존 명사인지, 어미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 '데' 띄어쓰기

**이럴 때 띄어요!** 의존 명사 '데'

- 갈 데는 많지만, 집에 있는 게 제일 편해. > 장소
- 배우는 데 얼마나 걸렸어? > 일
- 머리 아픈 데 먹는 약이야. > 경우

장소나 일, 경우를 나타내는  
의존 명사 '데'는 앞말과 띄어 써요.

**이럴 때 붙여요!** 어미 '-는데', '-는데', '-던데', '-은데'

- 그럴 분이 아니신데 실수를 하셨네.  
> 어떤 일을 설명하거나 묻거나 시키거나 제안하기 위해  
그 대상과 관련된 상황을 미리 말할 때 쓰는 연결어미
- 성적이 많이 올랐는데?  
> 어떤 일에 감탄하는 뜻을 나타내는 종결어미
- 그 사람 참, 잘 달리던데!  
> 과거의 일에 감탄하는 뜻을 나타내는 종결어미
- 방이 왜 이렇게 좁은데?  
> 일정한 대답을 요구하며 물어보는 뜻을 나타내는 종결어미

두 말을 연결하거나 말이 끝나는 곳에서 쓰이는  
'-는데', '-는데', '-던데', '-은데'는 붙여 써요.

온갖 데 다녀 봤는데,  
집만 한 데가 없네!

밖에 나가 봤는데  
너무 더워서 어지럽더라.

수박 썰까?  
더워 먹은 데(애)는  
수박이 최고지!

갈 데는 많지만 떠나기는 망설여지는 요즘,  
휴가철 인파가 물리는 데보다는  
집에서 휴가를 보내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 데 띄어쓰기

모두를 지키는 데 우리의 작은 힘이  
필요한 시기예요. 아울러 우리말 공부하는 데  
'실전 띄어쓰기'가 빠질 수 없겠조?

오늘은  
하늘도 파란 데다가  
바람까지 시원하게  
부는 데요!

# 당신의 말과 글, 인공지능에게 소중한 자원입니다

## 국립국어원 「말뭉치 지식 강연회」 온라인 개최 성료



국립국어원은 지난 달 18일 말뭉치 지식 강연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하였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 인공지능에 중요한 지식 자원인 우리말 자료, 말뭉치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마련한 자리로 말뭉치가 인문·사회와 공학 분야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알아보았다.

강연회는 모두 네 개의 강연으로 구성되었다. 민규동 감독과 주성철 평론가가 ‘말대꾸를 시작한 인공지능’이라는 제목으로 영화 속 말뭉치 관련 인공지능을 이야기하였고, 남세동 보이저엑스 대표가 ‘인공지능에 말뭉치를 더하다’라는 주제로 인공지능 시대를 앞당긴 주요 기술과 컴퓨터가 언어를 처리하는 전반적인 내용을 소개하였다.

이어서 이경일 솔트룩스 대표가 ‘인공지능을 완성시키는 언어 빅데이터’라는 주제로 자연어 처리 기술을 소개하고, 미래 전망을 이야기하였다. 마지막으로 송길영 다음소프트 부사장이 ‘나!, 너... 우리?’라는 제목으로 언어 빅데이터를 활용, 분석하여 코로나19 시대 우리 삶의 변화를 이야기하였다.

강연회에는 650여 명이 사전 참여 신청을 하여 524명이 접속하였다. 온라인으로 진행된 만큼 수도권 이외 지역 참여자가 142명에 달했고, 여기에는 해외 지역 참여자도 3명 포함되어 있다.



민규동 감독 / 주성철 평론가



남세동 보이저엑스 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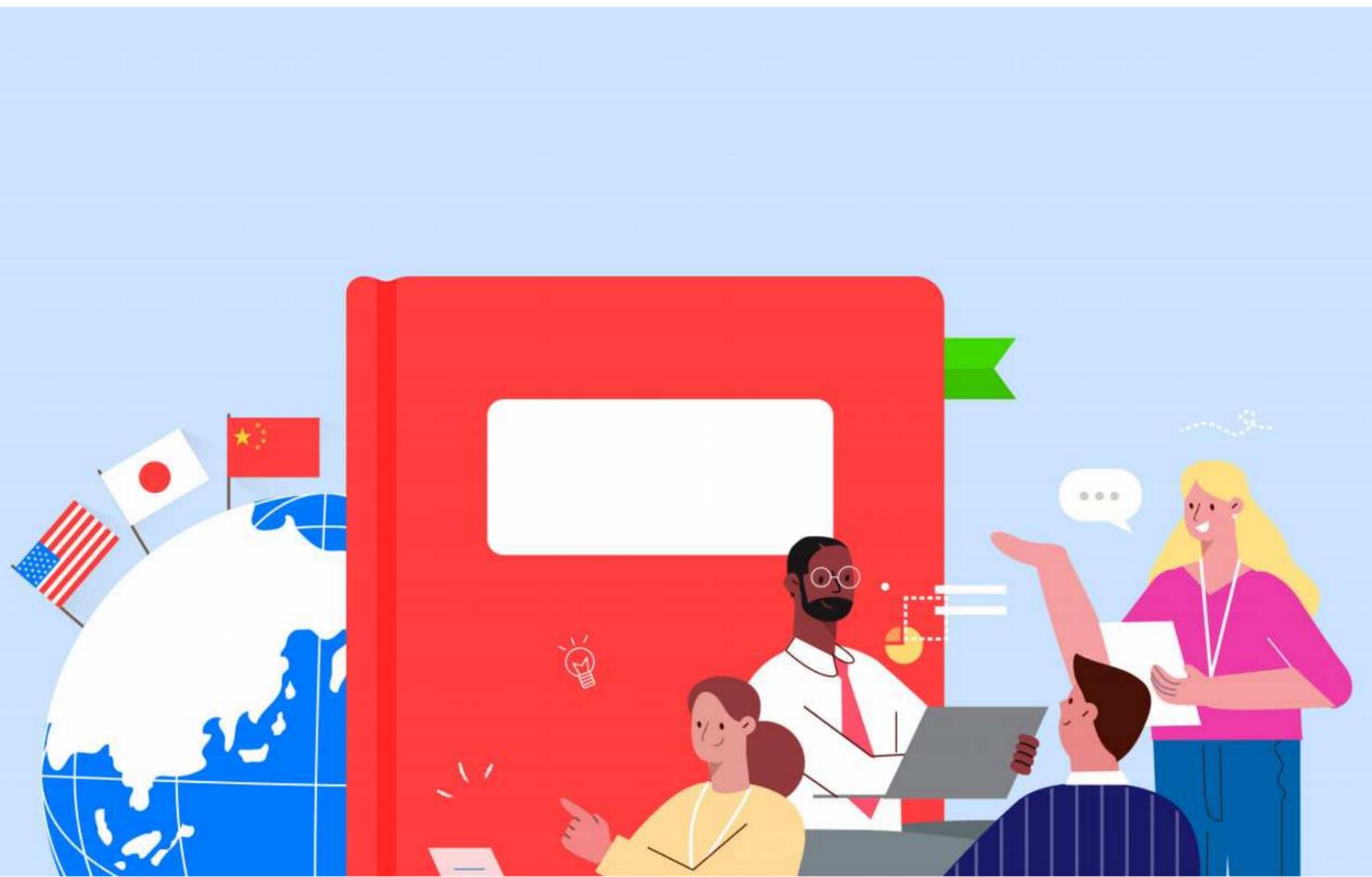


이경일 솔트룩스 대표



송길영 다음소프트 부사장

# ‘고추장아찌’를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표현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와 국립국어원(원장 소강춘, 이하 국어원)은 「공공 용어의 영어 번역 및 표기 지침」(문체부훈령 제279호, '15. 12. 29. 제정)의 번역 대상 언어와 분야를 확대해 「공공 용어의 외국어 번역 및 표기 지침」을 새로이 제정했다.

## 영어에서 중국어와 일본어까지 확대, 음식명 번역·표기 추가

기존에는 공공 용어 번역 및 표기에 대한 영어 지침만 있었지만, 우리나라에 방문하는 외국인의 비율\*을 반영하여 그 대상을 중국어와 일본어까지 확대해 지침을 마련했다. 또한, 지명, 도로명, 정거장명 등 5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던 훈령 적용 범위에서 새롭게 음식명 분야를 추가했다. 그동안 번역이 어려워 곤란을 겪었던 음식점 업주나 식품 관련 해외 진출 기업, 그리고 외국인 관광객까지 혼선과 불편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2019년 방한외래관광객(1천7백만 명) 중 중국인 34.4%(6백만 명), 일본인 18.7%(3백만 명)

새로운 지침에서 확대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일반인도 쉽고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풍부한 예시를 제공한다.

## 현행과 신규 제정안 비교

구분	현행 훈령('15년)	신규 훈령안('20년)
번역 대상어 (제목 등)	영어	외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적용 범위 (제3조, 제3장)	교통, 관광, 문화 관련 분야 중 용어 통일이 필요한 공공 용어 (자연 지명, 인공 지명, 문화재명, 도로명 및 행정구역, 정거장명)	용어 통일이 필요한 공공 용어 (자연 지명, 인공 지명, 문화재명, 도로명 및 행정구역, 정거장명, 음식명)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현행 대비 예시 추가 및 현행화</li> <li>실무 지원을 위한 공공 용어 번역 자원체계 안내(국어원 공공 용어 누리집)</li> </ul>	

이번 훈령에서는 번역 대상인 공공 용어의 구조\*를 분석한 결과를 번역에 활용하고, 영어, 중국어, 일본어 3개 국어의 특성별로 분야별 번역 방식\*\*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전부 요소:** 해당 용어에서 유래와 특징 등 개별성을 나타내는 앞부분

**후부 요소:** 해당 용어에서 유형과 실체 등 보편성을 나타내는 뒷부분

**\*\* 음역:** 한국어의 발음을 그대로 살려서 하는 번역

**의미역:** 용어의 의미를 살려서 하는 번역

**한자역:** 한국어의 한자어를 그대로 살려서 하는 번역

구분	영어	중국어	일본어	
자연 지명	남산	Namsan Mountain	南山	ナムサン(南山)
	관련 지침	· 로마자로 전체 명칭 음역 + 후부 요소 의미역	· (한자어 명칭) 한자역 또는 의미역 · (순우리말 명칭) 의미역 또는 음역	· 전체 명칭 음역 및 괄호 안에 의미역 병기
인공 지명	국제 시장	Gukje Market	國際市場	ククチェ(國際)市場
	관련 지침	· 로마자로 표기한 전부 요소 + 후부 요소 의미역	· (한자어 명칭) 한자역 또는 의미역 · (순우리말 명칭) 의미역 원칙	· 전부 요소 음역 및 괄호 안에 의미역 병기 + 후부 요소 의미역
도로명	경인로	Gyeongin-ro	京仁路	キョンインロ
	관련 지침	· 로마자로 전체 명칭 음역, 단 '고속도로'는 'Expressway'로 번역하여 표기	· (한자어 명칭) 한자역 · (순우리말 명칭) 의미역 또는 음역	· 전체 명칭 음역
음식명	고추 장아찌	Pickled Chili Pepper	辣椒醬菜	唐辛子の漬物
	관련 지침	· 재료명, 조리법 등 특징적 요소를 기준으로 번역		

국어원은 이번에 제정된 훈령을 적용해 공공 용어 번역안의 영·중·일 감수를 지원하고, 한국어와 한국 문화 관련 용어를 외국인에게 바르게 알리기 위해 표준 번역안을 마련해 [공공언어 통합 지원 시스템](#)에서 제공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세계화와 한류열풍으로 우리 지명이나 음식명 등을 외국어로 표기해야 할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라며, “표지판, 안내서, 지도, 음식명 등에서의 통일된 번역 기준을 제시해 ‘공공 용어’의 생산자(공공기관)와 이용자(외국인) 모두의 편의를 도모하겠다.”라고 밝혔다.

공공 용어의 외국어 번역 및 표기 지침 전문은 [국립국어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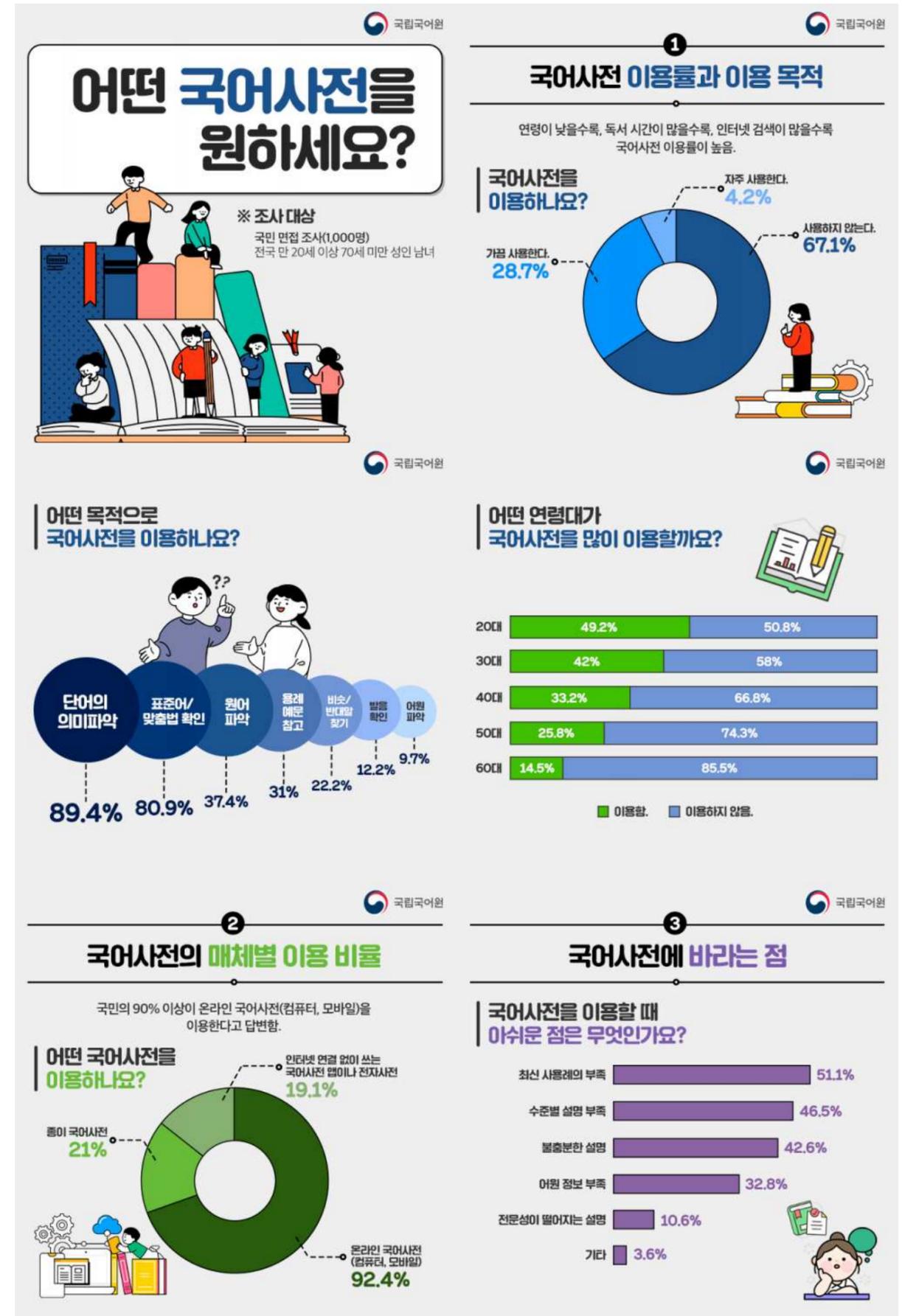
# 어떤 국어사전을 원하세요?



국어사전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해요!



여러분은 국어사전을 얼마나 자주 찾고, 어떻게 이용하시나요? 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국립국어원은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국어사전 사용자 인식 조사'를 했어요. 우리 국민이 어떤 국어사전을 원하는지, 국어사전의 현주소와 미래를 함께 알아볼까요?



### 국어사전의 어떤 점을 개선하면 좋을까요?



### 국어사전이 어떻게 바뀌기를 바라나요?



4

### 바람직한 국어사전의 개선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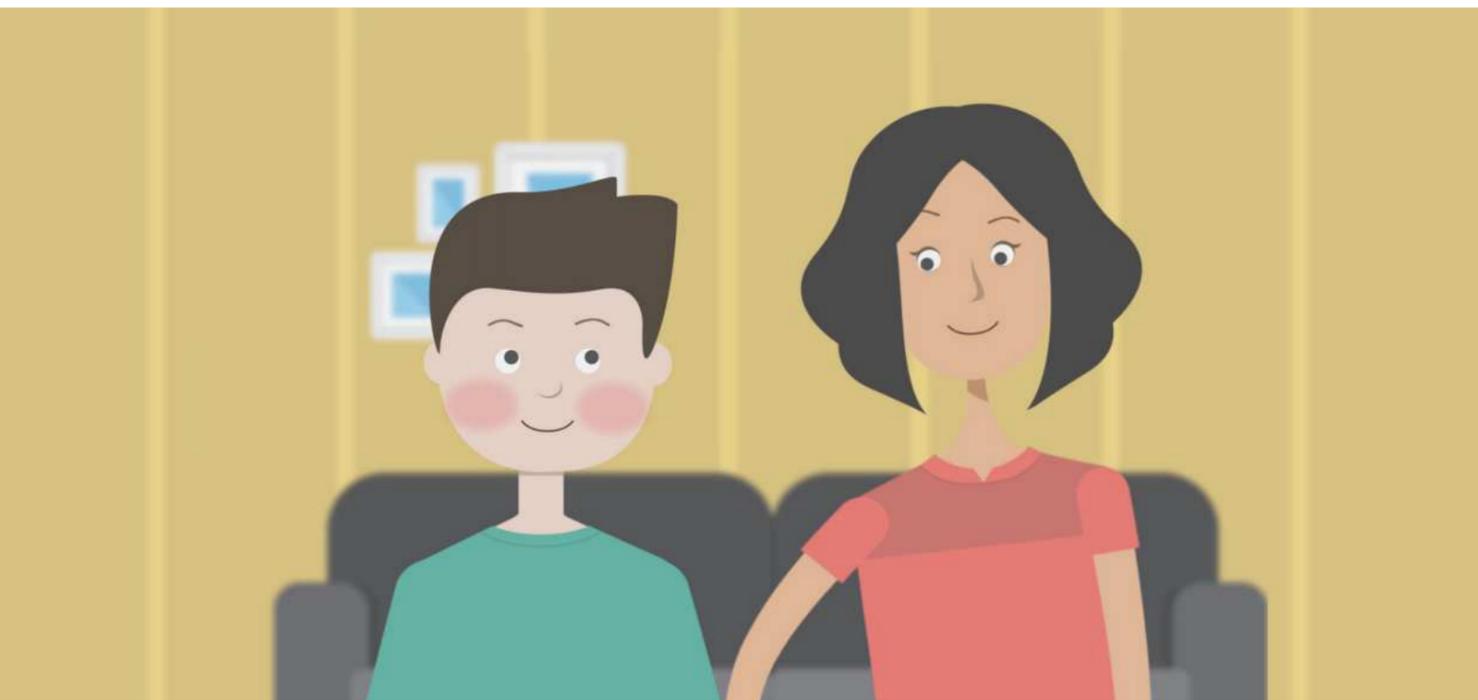
#### 국어사전이 어떻게 바뀌기를 바라나요?



핵심 내용  
다양한 정보  
하나의 사전



# ‘한알 방송’ 보고 쉬운 우리말 찾기! 2탄



## 1. 다음 중 외래어와 다듬은 말이 바르게 짝지어지지 않은 것은?

- ① 언택트 서비스 → 비대면 서비스
- ② 엔데믹 → (감염병) 세계적 유행
- ③ 라스트 마일 → 최종 구간
- ④ 뉴 노멀 → 새 일상

## 2. 영상에서 본 ‘다듬은 말’ 중 가장 마음에 드는 말과 그 이유를 적어 주세요.

## 3. 이 영상을 자신의 누리소통망에 공유한 후, 공유한 주소를 적어 주세요.

(※ 당첨 확률을 높이려면?)

- ① #국립국어원 #다듬은말 #새말모임 #쉬운우리말 해시태그 필수
- ② 공유는 ‘공개’ 계정에
- ③ 여러 곳에 공유



여러분도 최근 자주 보고 들은 말이지요?  
그런데 듣기에도 쓰기에도 너무 낯설고 어렵지 않은가요?

어려운 외래어들을 대신할  
쉬운 우리말을 알려 드릴게요.  
지금 바로 ‘한알 방송’에서 확인해 보세요!

### ·참여 방법

1. “영상 보고 문제 풀기” 를 눌러 주세요.
2. 문제를 풀고, 답을 적어 주세요.
3. 응모자의 이름과 연락처, 수신 동의(필수)를 입력해 주세요.
4. ‘제출하기’를 누르면 끝!

### ·응모기간

2020. 7. 7.~2020. 7. 14

### ·당첨자 발표

7. 17.(금) 국립국어원 <심표, 마칩표.> 누리집 ‘기획 행사’ 게시판

### ·선물



# 나를 채우는 시간-채움 기간



전서희 손꼽아 기다릴게요!

남의 그림이 큰 위로가 됩니다.

“ 채움 기간 동안 날마다 그림을 그렸어요. 지금은 누리 소통망에서 그림 분야 영향력자가 됐어요. ”

“ 채움 기간은 ‘멈춤’이 아니라 내 삶을 재정비하는 ‘충전’의 시간이에요! ”

채움 기간은 나를 온전히 채우고, 다음을 힘차게 나아가는 데 필요한 시간이에요.

채움 기간에 꼭 하고 싶었던 일에 도전해 보세요. 운동이나 공부, 여행, 자원 봉사 등 무엇이든 좋아요!

국립국어원

“ 채움 기간에 쌓은 휴식과 영감이 더 단단한 나, 그리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원동력이 될 수 있어요. ”

#갬\_이어\_대체어\_채움\_기간  
#번아웃 증후군\_대체어\_탈진\_증후군  
#인플루언서\_대체어\_영향력자

채움 기간은 ‘갬 이어’를 다듬은 우리말로, ‘학업이나 직장 생활을 잠시 중단하고, 여행이나 봉사 활동 등 자아를 성찰하고 진로를 탐색하는 시간’을 뜻합니다.

“ 채움 기간으로 소중한 내 삶을 가꿔 보아요! ”

국립국어원

나를 채우는 시간  
**채움기간**  
여러분은 자신의 삶을 잘 가꾸고 있나요?

“ 너무 많은 일에 쫓기던 어느 날, 탈진 증후군이 왔어요. 그래서 채움 기간을 갖기로 했죠. ”

아, 꿈꿔도 못하겠어.

2:10

업무나 학업에 쫓겨 나를 되돌아볼 시간이 없었다면, 잠시 일상을 내려놓고 채움 기간을 가져 보는 건 어떨까요?

#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어휘 사용과 유행의 변화(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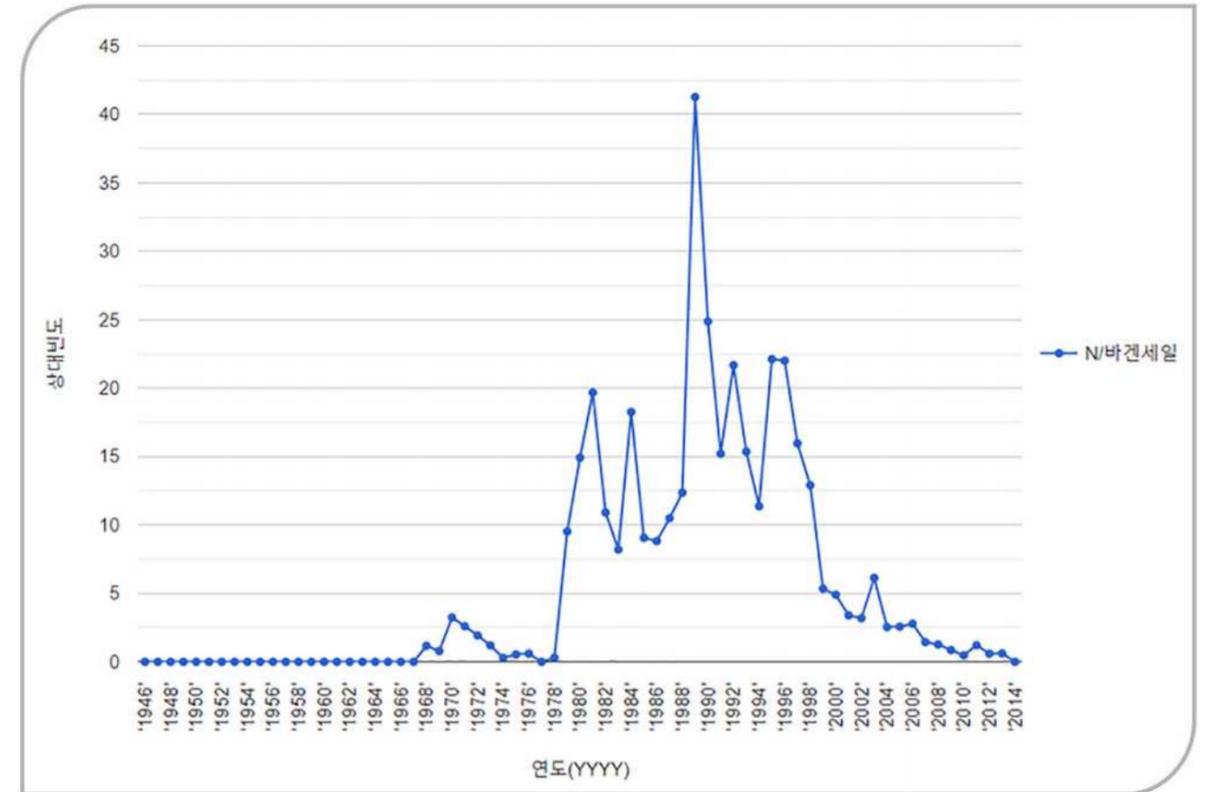


글. 김일환 (성신여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최근의 것은 잘 기억된다. 증가 추세에 있는 단어들을 비교적 어렵지 않게 포착할 수 있는 것도 바로 그 때문이다. 대규모의 통시적인 말뭉치를 통해 증가 추세에 있는 단어들을 추려서 제시하면, 대부분 “그럴 줄 알았다.”는 반응이 많이 나오는 것도 이와 관련이 있다. 이는 우리 기억의 한계이기도 하고 심리적인 여러 기제와도 관련이 있을 것이다. 그에 비해 사라져 가는, 소멸하는 단어들을 직관적으로 추측하기는 쉽지 않다.

## 사라지는 바겐세일

‘바겐세일’은 198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절정의 쓰임을 보이다가 이후 급격히 감소되는 양상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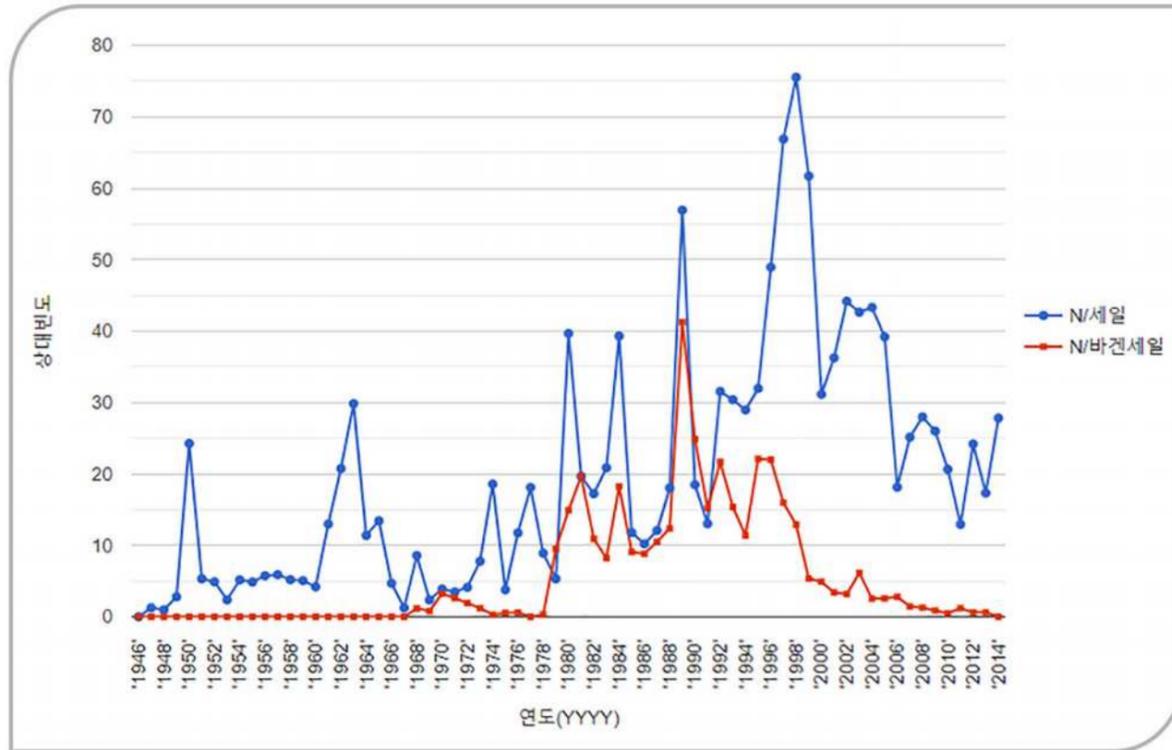
▲<그림 1> ‘바겐세일’의 연도별 상대 빈도

<그림 1>은 신문에 나타난 빈도만을 표시한 것이므로 ‘바겐세일’이라는 단어가 현재 완전히 소멸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 단어의 감소폭이 급격하다는 점은 변함이 없다.

왜 ‘바겐세일’은 1990년대 후반에 이르러 급격하게 사용이 감소했을까?

## ‘주부’와 ‘탤런트’는 어디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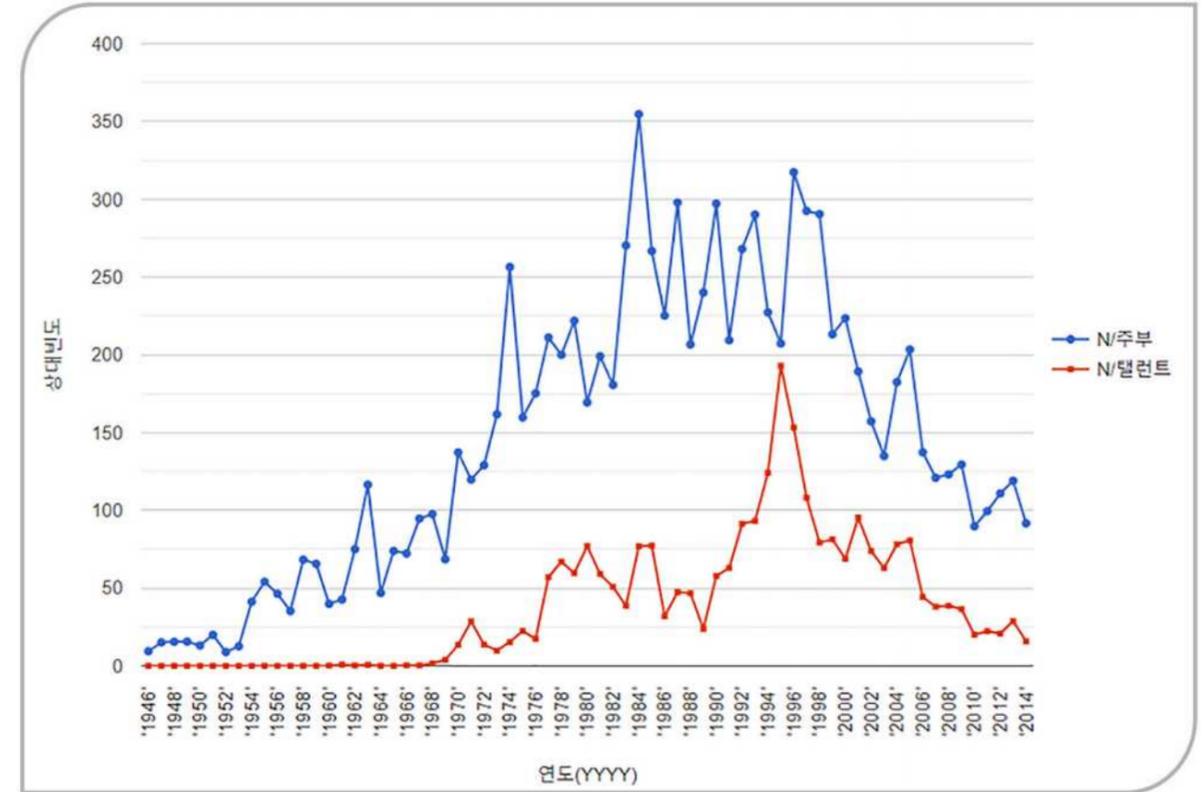
사용 빈도의 감소 추세를 보이는 어휘 중에는 ‘주부’와 ‘탤런트’도 있다.



▲<그림 2> ‘세일’과 ‘바겐세일’의 연도별 상대 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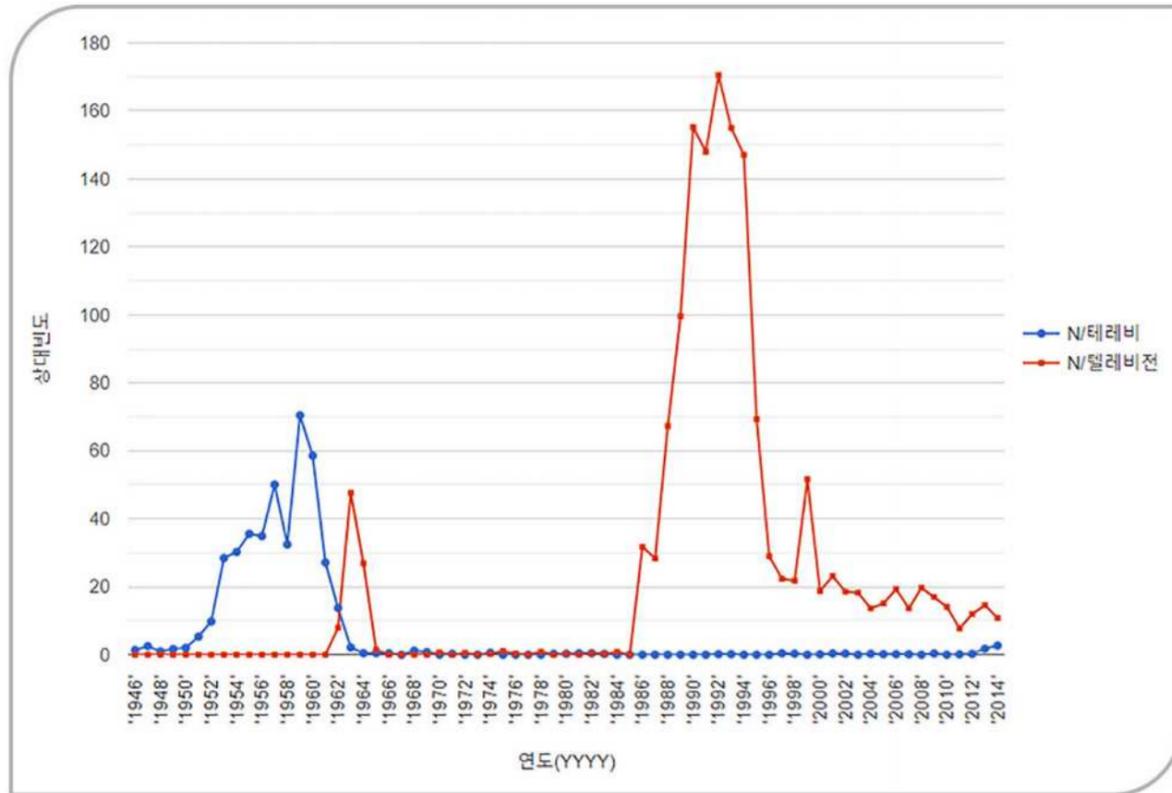
혹시 ‘세일’의 빈도와 관련 있을까?

<그림 2>는 ‘세일’도 감소 추세를 보이긴 하지만 ‘바겐세일’에 비하면 그 감소폭이 그렇게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세일’이 ‘바겐세일’의 영역을 흡수한 것은 아닐까?



▲<그림 3> ‘주부’와 ‘탤런트’의 연도별 상대 빈도

<그림 3>에서 볼 수 있듯이 ‘주부’와 ‘탤런트’는 19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부터 사용 빈도가 감소하기 시작한다. 이는 2000년대에 들어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크게 증가하고, 탤런트라는 직업의 인기가 시들해지면서 나타난 현상인가? 아니면 단지 일시적인 우연한 현상일 뿐일까? ‘탤런트’의 감소는 ‘텔레비전’의 감소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 보인다.



▲<그림 4> '텔레비'와 '텔레비전'의 연도별 상대 빈도

<그림 4>에서처럼 외래어 표기가 다양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텔레비전'의 감소 추이는 매우 급격하다. 이러한 감소 추이를 보이는 단어에는 '오락, 비디오, 승용차' 등도 포함된다.

이번 글에서는 명확한 원인 규명보다는 물음표로 끝나는 질문이 더 많았다. 단어의 사용 빈도가 감소한다는 것은 그만큼 사회적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음을 뜻하는데, 어떤 이유로 이들이 관심의 영역에서 벗어나고 있는지를 규명하는 것은 단순한 일이 아니다. 시간적인 간극이 끼어들면 당시의 시점으로 돌아가서 무언가를 밝히는 작업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통시적인 대규모의 말뭉치를 통해 감소 추이를 보이는 단어를 포착할 수 있다는 것은 그나마 다행한 일이다. 잊힌다는 것은 서글픈 일이지만 무엇이 잊힌 것인지조차 모른다면 더욱 허망할 것이다.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사전학센터  
도원영 부소장, 장선우·김숙정 연구교수

# 가장 믿을 만한 언어 지식을 집대성한 책, 사전을 만드는 사람들



어마어마한 양의 교정지와 오래된 자료로 가득 찬 공간 한 귀퉁이에 등지를 틀고, 언제 끝날지 모를 작업을 하면서도 가슴 한  
편에 꼭 해야 하는 일이란 사명감을 품고 한 글자 한 글자 뜨겁게 마주하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사전 편찬자들이다.  
얼마나 고도의 지적 기술인지, 사전 만들기는 ‘편집’이란 단어로 모자라 ‘편찬’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유일한 작업이  
기도 하다.



## 사전을 만드는 사람들

### 《선표, 마침표.》

사전 만드는 일이 워낙 전문적이고 사전을 만드는 분들이 조명을 받는 일은 드물다 보니,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소개부터 부탁드립니다.

### 도원영

사전학센터 부소장으로 실무를 이끌고 있어요. 국어사전 관련해서 2009년에 발간한 《고려대 한국어대사전》 실무 책임을 맡았고요. 지금은 《중한사전》, 《한중사전》, 《테툼어(동티모르 공용어)사전》, 《남북의학용어사전》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장선우

저는 중한실에서 《중한사전》, 《한중사전》 등의 실무 책임을 맡고 있어요.

### 김숙정

저는 《테툼어사전》, 그러니까 동티모르어 사전을 만들고 있어요. 한국에서 벌어 가는 수입이 중요한 수입원이기도 해서 동티모르에서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대요. 동티모르 국립대학교에 아시아인 교수님이 딱 한 분 계시는데, 평화안보학 전공이세요. 그분이 한국어 사전 만드는 데 도움을 얻고자 저희 쪽으로 찾아오시며 편찬이 시작되었죠. 네이버 문화재단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었지요. 《테한사전》이 완성이 됐고, 지금은 《한테사전》을 만들고 있어요. 한국에서는 최초의 작업입니다.

### 《선표, 마침표.》

사전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궁금합니다. 사전을 만드는 사람들을 소재로 한 영화 《행복한 사전》에서 그 과정을 조금 엿볼 수 있었는데요.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서 부터가 극화된 걸까 궁금해요. 여기 계신 부소장님이나 박사님들은 영화를 보셨나요?

**도원영** 전 안 봤어요. 안 봐도 훤히 것 같아서요. (웃음) 국립국어원 선생님들도 그렇고, 사전을 만들거나 연구하시는 선생님들이 서로 영화 봤으면서 다들 좋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영화가 <배를 엮다>라는 소설이 원작인데요. 우리나라에서 번안해서 연극으로 올리기 전에 대사 낭송회를 했었어요. 초대를 받아 낭송회에 가서 봤는데 좋더라고요. 사전을 만드는 사람들의 삶이 잘 조명되었어요.

《**심표, 마침표.**》 영화에서 보니까, 단어를 수집하러 다니고 그러더라고요.

**장선우** 예전에는 그랬을 거예요. 저희 중한사전은 작년이 편찬 30주년이었는데요, 저는 만들어진 사전으로 공부한 세대이고 그전에 여기서 일하셨던 분들은 다른 언어권에서 나온 중국어 사전, 중일, 일중 사전들을 많이 참고해서 어휘를 뽑았다고 알고 있어요. 중국에서 나오는 현대 중국어대사전 등에서 수집하고 선별해서 만들었다고 들었어요.

《**심표, 마침표.**》 우문인 것 같습니다만, 사전에 세상에 모든 말이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선별을 하나요?

**김숙정** 방언의 비중을 줄이고 표준어를 많이 넣어요. 대사전, 중사전, 소사전처럼 사전의 규모나 용도·목적에 따라 실리는 단어가 달라지기도 해요. 학생들이 배우는 어학 사전은 일상용어를 많이 넣고 중급, 고급으로 갈수록 시사적인 용어도 들어가도록 선별을 하기도 합니다.

《**심표, 마침표.**》 그렇다면 사전에서 탈락한 단어는 일종의 생을 다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도원영** ‘탈락하였다.’는 게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애초에 사전에 등재되지 못한 어휘인 경우와 이전 사전에 등재되었다가 새로운 사전에서 선정되지 못한 경우인데요. 전자의 경우 어휘의 생명을 다했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전에 기록된 언어 정보는 편찬자가 언종을 대표해서 집필하는 건데, 편찬자가 모든 언종의 언어를 다 알고 있지는 못하거든요. 오히려 그 쓰임이 나중에라도 말뭉치나 빅데이터에서 확인되면 사전에 올려야 하는 게 편찬자의 일이지요. 후자의 경우 같은 말이 중복되어 들어갔거나 하는 오류도 있을 거고, 규범이 바뀌어서 이전에 쓰던 말이 점점 안 쓰이게 되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명백한 오류는 사전에서 제거해야 하지만, 쓰임이 바뀌거나 규범이 바뀌면서 점점 생명력이 줄어드는 말도 사전에 남겨야 한다고 생각해요. 말이 생겨나서 다양하게 쓰이다가 소멸해 가는 생태 주기에 대해서도 사전이 오롯이 기록하는 쪽으로요.

**17년 동안 만든 《고려대 한국어대사전》, 큰 자부심**

《**심표, 마침표.**》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사전학 센터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작업은 무엇인가요?

**도원영** 《고려대 한국어대사전》은 1993년에 시작해서 2009년에 완성했어요. 17년 동안 355명의 손을 거쳐 1억 어절에서 38만 6,889개 표제어를 뽑아 7,535쪽의 대사전에 담았죠. 저만이 아니라 당시 함께했던 선생님들과 연구원들에겐 가장 가슴 벅찬 일이었지요. 그다음으로는 저희가 학습 사전 편찬을 위해 공을 들인 끝에 중국인을 위한 《고려대한한중사전》, 《한한학습사전》을 마무리한 일입니다. 또 여기 계신 김숙정 선생님은 《고려대 한국어대사전》을 만들 때 조교보로 시작해서 지금은 연구교수로 《테툼어사전》을 맡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만들고 있으니 아주 자랑스럽죠.

《**심표, 마침표.**》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사전학 센터 사전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사전학 센터에서 만든 사전들

**김숙정** 아무래도 규범성을 따라야 한다는 부담에서 조금 더 자유로워요. 사람들이 실제 쓰고 있는 단어들을 조금은 더 여유롭게 사전으로 데리고 들어오려고 합니다. 물론 규범성도 판정하지만, 뜻풀이를 좀 더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다는 게 큰 차이예요. 규범성을 가진 상태에서 실제적인 언어에 가깝게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도원영** 비표준적인 말이나 평소에 삼가야 하는 표현을 저희가 말뭉치에서 확인하고 거기서 뜻풀이와 용례를 찾아서 신다 보니 현실감이 두드러져요. 그래서 문제가 되기도 해요. 저희가 포털에 사전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왜 여성을 비하하는 표현을 등재했냐, 왜 《표준국어대사전》의 내용과 다르냐고 삭제해 달라거나 《표준국어대사전》과 똑같이 바꾸어 달라는 요청을 지속해서 받아요. 현실 언어의 모습을 반영하는 것이 저희 사전의 특성이니 우리 언종이 사용하고 있는 표현인 이상 못 고친다고 버티고 있어요. 사실 많이 힘든 부분입니다.

《심표, 마침표.》

영화 《행복한 사전》에도 비슷한 장면이 나오지만, 단어의 풀이가 제각각 다르더라고요. 사전을 잘 모를 때는, 나라의 법처럼 엄격하게 정해진 줄 알았습니다.

도원영

이전의 국어사전들을 보면 풀이가 조금씩 다르지요. 다만, 국립국어원에서 《표준국어대사전》이 나오고 이를 웹으로 제공하게 되면서 우리 언중의 언어생활에서 준거가 됐어요. 어문 규범과 관련한 건 《표준국어대사전》을 따라야 하지만, 나머지 말들은 사전에 따라 이렇게도 표현하고 저렇게도 풀이할 수 있지요.

저희가 네이버에 국어사전 서비스를 하게 되었을 때 네이버 담당 선생님이 《표준국어대사전》에는 ‘사람’이 ‘언어와 도구를 쓰고 사회를 이루어 사는 동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고려대 한국어대사전》에는 ‘문화를 향유하고 생각과 웃음을 가진 동물’이라고 되어 있다는 점이 달라서 재미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희는 몰랐어요. (웃음) 이 경우 《표준국어대사전》도 맞지만, 저희 사전도 틀린 건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예를 들어 ‘피타고라스의 정리’와 같은 표제어는 《표준국어대사전》이나 《고려대 한국어대사전》가 아주 다르면 안 되죠. 수학 용어는 수학회와 수학자가 정의한 바를 수용해야 하니까요. 그러나 먹고 자고 꿈꾸고 살아가는 과정에 관한 말은 그 결이 저마다 다르죠. 우리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의미나 정서를 다양하게 풀어줄 수 있으면 사전을 보는 사람들도 더 즐겁고 재미있지 않을까요.

새로운 단어만 보면 분석부터 해

《심표, 마침표.》

사전 편찬자가 익숙한 직업군은 아니에요. 어떻게 사전 만드는 일을 하시게 되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어요.

장선우

아들이 중학교 1학년 땀가, 부모님 직업을 인터뷰하는 숙제를 해야 한다고 친구랑 같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전을 만든다고 보여줬더니, ‘뭘 이런 걸 직업으로 하지?’ 하는 표정을 지으며 굉장히 낯설어 하더라고요. (웃음) 사실 저도 처음 일을 시작할 때는 어디서부터 뭘 해야 할지 전혀 감을 못 잡았어요.

중국에서 현대 중국어 문법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막 한국에 들어왔을 때 한국어와 중국어를 모두 할 줄 아는 사람을 찾는다고, 지인에게 제안을 받아 일을 시작하게 되었거든요.

도원영

박사 과정 2학기 때 편찬실 부실장이셨던 지도교수님께서 일을 좀 해 달라셔서 들어오게 된 게 오늘에 이르렀네요. 당시에 연세대도 사전을 만들기 시작했고, 국어원도 대사전 편찬을 시작한 상태였어요. 당시 국내외 관련 자료를 살펴서 지침의 뼈대를 만들고, 시범 집필을 하면서 하나하나 다 세워 나갔던 것 같아요.

김숙정

4학년 때 대학원 준비를 하면서, 공부 겸 아르바이트(부업)로 사전실에 들어와 용례를 찾는 일을 했어요. 대학원 들어가서 의미론을 전공했는데 어휘 의미에 관심이 있으니까 너무 당연하게 사전실에 계속 머물게 되었고, 이곳에서 배운 것들을 가지고 학위 논문을 쓰면서 지금까지 사전을 만들게 되었네요.



▲ (왼쪽부터) 김숙정 박사, 도원영 부소장, 장선우 박사

《심표, 마침표.》

사전을 만드는 분들만의 ‘직업병’도 있을 것 같아요.

장선우

저뿐만 아니라 사전 만드는 분들을 옆에서 보면 새로운 단어만 보면 분석을 하세요. ‘뭘랑 뭐가 붙어서 이렇게 된 거다’ 하고요. 그럴 때마다 직업은 못 속이는구나 싶어요.

김숙정

저는 노래방 가서 자막을 못 보겠어요. (웃음) 자막 보면서 잘못된 표기 찾고, 띄어쓰기하고 있어요. 저도 모르게.

《심표, 마침표.》

두 박사님은 부소장님과 다르게 이언어사전을 만들고 계시는데요. 한글사전과 이언어사전의 작업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김숙정

이언어사전을 만들 땐 문화 차이를 다루는 게 힘들어요. 동티모르는 천주교를 기반으로 하는 문화가 강해서 종교 관련 어휘가 많아요. 관련된 기념일이나 직업 같은 거요. 우리말에 딱 맞는 번역어를 찾기 어려울 때가 많죠.

《테한사전》이면 한국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한테사전》이면 동티모르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작업해야 하는데, 어느 선까지 맞춰 줘야 하는지가 어려워요.

장선우

국어사전에서는 규범성이 중요하다면 이언어사전에서는 실용성이 중요해요. 한국 사람들이 모여화자로서 국어사전을 볼 때 그 목적이 정확성, 규범성에 있다면, 외국어 학습자로서 이언어사전을 보는 목적은 빨리 문장을 만드는 데에 있을 수도 있어요. 사전의 용도가 다른 거죠. 중한, 한중은 사용자들이 실용적으로 빨리 찾아서 빨리 표현을 만들어내는 데에 용이하도록 좀 더 고민합니다.

## 한국의 사전, 아직 성장하는 단계... 갈 길 멀어

《선표, 마칩표.》 사전을 만들 때,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요. 또 가장 보람된 순간도 궁금합니다.

**장선우** 사전 만드는 일 자체가 어려워요. (웃음) 중국어랑 한국어는 대응시킬 수 없는 말들이 많아요. 일대일 번역이 안 되니까 어렵죠. 번역할 말이 없다면 도대체 뭐라고 해야 할까 고민이 많이 돼요. 한번 그런 단어를 만나면 계속 고민하게 되는데 제 마음대로 '이런 뜻이니까 이렇게 단어를 새로 만들면 되겠지.' 할 수도 없잖아요.

**김숙정** 요즘엔 제가 직접 단어를 풀이하는 일보다는, 여러 편찬자들에게 배분하고 수집하고 일관성을 맞추는 업무를 더 많이 하는데요. 제날짜에 수합하는 게 제일 어려워요. (웃음) 꼼꼼한 분들이 '가다' 같은 단어를 만나면 일주일도 걸리고 한 달도 걸려요. 재촉할 수 없으니 기다려야 해요. 한 권의 책인데 여러 사람의 목소리가 아우성치면 안 되잖아요. 그걸 맞추기도 어렵고요. 보람이 느껴지는 때라고 하면 책이 나왔을 때죠. 《테한사전》은 올해나 내년 초에 나오구요. 《한테사전》은 그보다 조금 더 걸릴 듯인데, 두 권이 모두 나오면 동티모르에 가서 출판기념회를 열 예정입니다. 그땐 정말 뿌듯할 것 같아요.

**도원영** 저는 사전학센터에 오래 있어서 그런지 사전 관련해서는 어려운 게 없어요. (웃음) 늘 재미있어요. 그런데 사전 만드는 사람들과 만나고 헤어지는 건 좀처럼 익숙해지지 않고 어려워요. 사전을 만들던 훌륭한 분들이 그만두고 나가실 때 공백이 굉장히 커요. 누군가 새로 와서 배우고 적응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안정적인 환경에서 사전을 만들고 연구하는 게 중요한데, 지원이 충분하지 않으니 사람을 키워 놓으면 나가게 되는 환경이 늘 안타까웠어요.



《선표, 마칩표.》 오늘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전 편찬자로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왜 사전이 여전히 중요한 것인지 듣고 싶습니다.

**장선우** 우선 새로운 단어가 생기고 말이 변화해요. 사전도 변하죠. 새로운 말을 사전에 추가하고, 옛것은 오늘에 맞게 뜻을 수정·보완도 해요. 예전에는 뜻풀이랑 대응어가 중요했다면 지금은 용례가 중요해졌죠. 위키처럼 개인적으로 사전을 만드는 사람도 있지만, 언어는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통일돼야 소통이 가능하잖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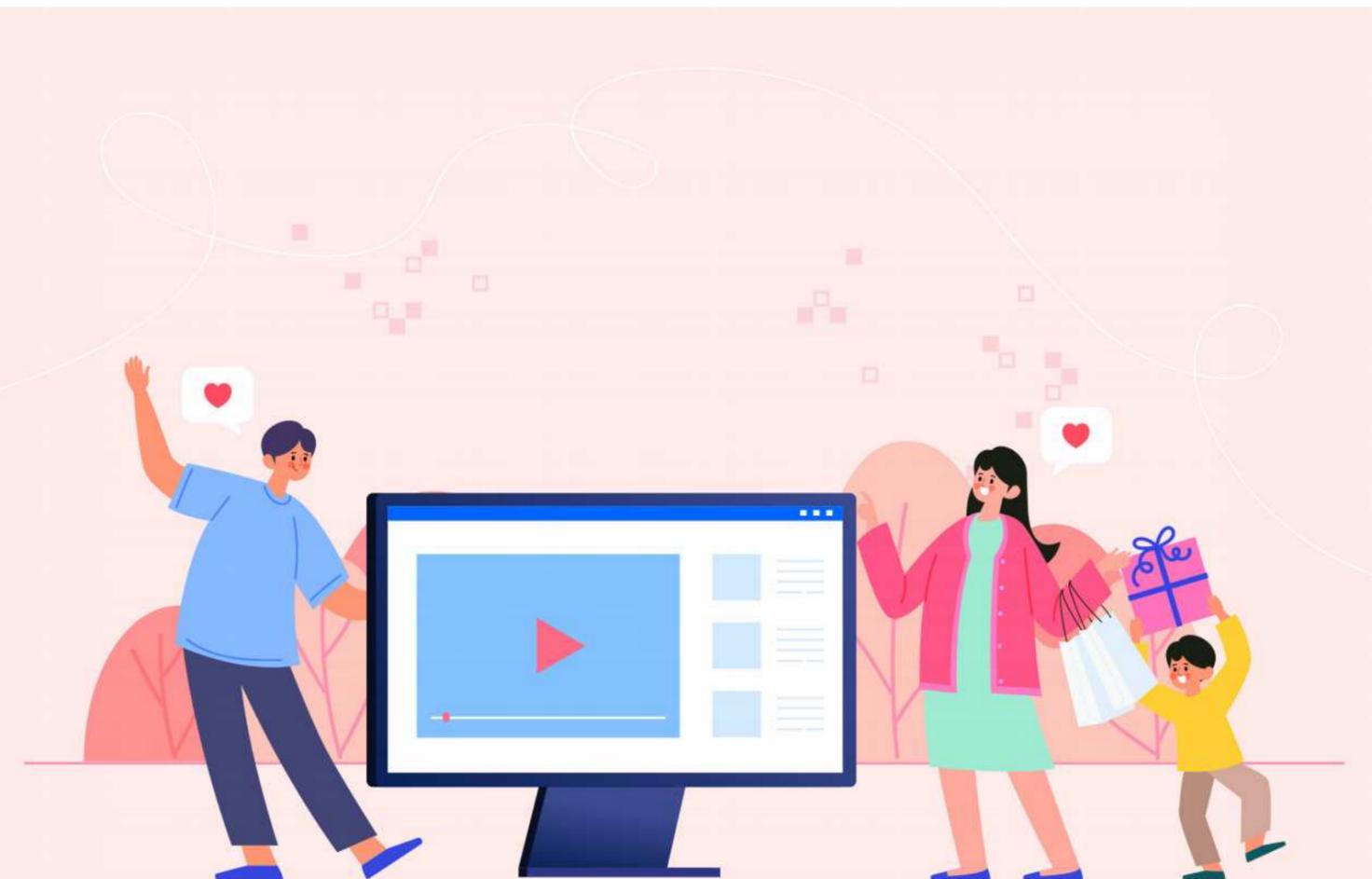
중국어 한 단어를 사람마다 다르게 번역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사전이 만들어진다면 다르게 번역된 말들이 같은 걸 말한다는 것을 모르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전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처음에는 중구난방으로 번역됐던 단어라도, 사전에 정리되어 있으면 누가 찾든 오해 없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니까요.

**김숙정** 단어의 생애주기가 사람 사는 거랑 비슷해요. 태어나서 살다가 죽어요. 어떤 단어는 가늘고 길게 가고, 어떤 단어는 화려하게 반짝이고 금방 사라져요. 예전에는 단어의 지금 모습을 포착해서 사전을 만드는 데 집중했어요. 옥스퍼드 같은 사전을 보면, 단어 하나에 그 단어의 역사가 다 나와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게 아직 안 되어 있어요. 옥스퍼드사전처럼 돼 있으면 그 사전만 펼쳐 봐도 언어에 담긴 다양한 콘텐츠를 잘 정리할 수 있어요. 우리는 아직 그런 게 부족해서 걸음마 단계라고 봐요. 갈 길이 멀니다.

**도원영** 젊은 편찬자를 키워야 말이 바뀌는 걸 기록하고 기술할 수 있지요. 사실 포털을 통해 사전 정보가 엄청나게 제공되지만, 언어 사전이나 특수한 사전 몇 가지만 계속 갱신되거든요. 아직 없는 사전도 많고요. 검색을 통해 전보다 사전을 훨씬 더 많이 이용하고 있지만, 이용자가 요구하는 고급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 주진 못하고 있어요. 보강해야 할 과제죠. 특히 전문용어 사전은 그 분야의 규범이 되고 그 말을 알아야 그 분야를 이해하게 되는 도구잖아요. 학문이나 기술의 발전에 따라 빨리 수정하거나 새로 만들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분야가 많이 있어요. 사전은 내가 모르거나 궁금한 말에 대해 간단명료하게 그 의미를 보여 주죠. 사전을 잘 만들어 보급하는 것은 사람들이 지식과 정보의 세계로 들어가는 길을 넓히는 일이니, 사전을 만드는 사람들은 할 일이 여전히 많은 것 같습니다.

글: 강은진  
사진: 김영길

# ‘한알 방송’ 보고 쉬운 우리말 찾기 2탄 당첨자 발표



‘한알 방송’보고 쉬운 우리말 찾기! 2탄 행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아래와 같이 당첨자를 발표합니다.

당첨되신 분들께는 7월 24일(금)까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상품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국립국어원과 <<쉽표, 마침표.>>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국립국어원

## ‘한알 방송’ 보고 쉬운 우리말 찾기! 2탄

지금 참여하고 **치킨** 받으세요!

**참여 기간**  
7. 7.(화)~7. 14.(화)

**당첨 선물**

- 이름상**  
치킨+콜라 교환권 5명
- 베금상**  
커피 교환권 20명

**이름상** 치킨+콜라 교환권

구\*경(3506) 김\*연(0211) 윤\*정(0828) 지\*나(2824) 최\*희(8916)

**베금상** 커피 교환권

김\*단(4837) 김\*아(2129) 김\*인(8242) 김\*영(5796) 김\*서(2538)  
 노\*현(4569) 류\*윤(3741) 마\*우(4176) 배\*경(8696) 백\*현(2368)  
 석\*민(1692) 송\*은(4197) 안\*영(3776) 이\*경(7454) 이\*승(2520)  
 장\*미(8891) 장\*정(5032) 전\*은(4756) 주\*혁(5414) 함\*선(8569)

# 국립국어원 《쉽표, 마침표.》 온라인 소식지 독자 만족도 설문 조사독자 만족도 설문 조사



국립국어원 《쉽표, 마침표.》는 더 나은 소식지로 거듭나고자 독자분들의 의견을 들으려 합니다.  
성실하게 답해 주신 30분을 추첨하여 선물도 드리니 많이 참여해 주세요!



## ·참여 방법

1. “설문 조사 참여하기” 를 눌러 주세요.
2. 설문 조사 항목을 적어 주세요.
3. 응모자의 이름과 연락처, 수신 동의(필수)를 입력해 주세요.
4. ‘제출하기’를 누르면 끝!

## ·응모기간

2020. 7. 21.~2020. 8. 3.

## ·당첨자 발표

개인별로 알리고 <<쉽표, 마침표.>> 8월 호에 공고함

## ·선물

이름상



피자  
10명

버금상



문화상품권  
20명

# 우리말 풀기



독자 여러분은 올 여름 계획 세우셨나요?

뜻하지 않은 상황으로 예전처럼 자유롭게 여름 여행을 떠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더위를 피하는 방법은 많지요.

가장 좋아하는 장소에서 좋아하는 일을 하며 시원하고 즐거운 여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쉽표, 마침표.”가 준비한 문제를 풀면서 잠깐 더위를 잊어 보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겠죠?

## 문제 1

언어의 규칙에는 단어의 형태 규칙도 있다. 단어의 형태 규칙이란 단어의 구조나 단어의 형성 원리를 말하는 것인데, 이를 설명하는 분야를 ‘○○○’이라고 한다. 단어를 이루는 기본 단위가 형태소임을 중시한 용어이다.

단서 쉽게 읽는 문법 용어

## 문제 2

올해도 어김없이 여름철 불청객들이 찾아왔어요. 시원한 냉면 ‘○○’ 몸보신 음식을 먹으며 여름을 즐기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겠죠? ‘○○’ 처럼 두 말을 잇거나 열거할 때 쓰는 말은 별개의 단어이므로 띄어 써야 해요

단서 실전 띄어쓰기

## 문제 3

이어서 이경일 솔트룩스 대표가 ‘인공지능을 완성시키는 언어 빅데이터’라는 주제로 ○○○○○○을 소개하고, 미래 전망을 이야기하였다. 마지막으로 송길영 다음소프트 부사장이 ‘나!, 너... 우리?’라는 제목으로 언어 빅데이터를 활용, 분석하여 코로나19 시대 우리 삶의 변화를 이야기하였다.

단서 국어원 소식

## 문제 4

국어에서 ‘ㄹ’은 어두에 올 수 없다는 제약 때문에 ‘량반>냥반>양반’과 같은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그런데 원래부터 ‘ㅇ’이었는데 이것이 본래 ‘ㄹ’이나 ‘ㄴ’이었을 거라고 오해해서 이 ‘ㅇ’을 ‘ㄹ’이나 ‘ㄴ’으로 고쳐 쓰는 경우가 있다. 언어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이라고 한다.

단서 표준어 바깥의 세상

## 문제 5

어의 사용 빈도가 감소한다는 것은 그만큼 □□□□□□에서 멀어지고 있음을 뜻하는데, 어떤 이유로 이들이 관심의 영역에서 벗어나고 있는지를 규명하는 것은 단순한 일이 아니다. 시간적인 간극이 끼어들면 당시의 시점으로 돌아가서 무언가를 밝히는 작업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단서 말뭉치로 바라보기

### ·참여 방법

1. “우리말 풀기 참여하기” 를 눌러 주세요.
2. 문제를 풀고, 답을 적어 주세요.
3. 응모자의 이름과 연락처, 수신 동의(필수)를 입력해 주세요.
4. ‘제출하기’를 누르면 끝!

### ·응모기간

2020. 7. 7.~2020. 7. 20.

### ·당첨자 발표

개인별로 알리고 “심표, 마침표.” 8월 호에 공고함

### ·선물

당첨자 열 분께는 음료 교환권을 드립니다.



### 2020년 6월 호 우리말 달인 당첨자

조\*부(4615) 허\*호(2333) 이\*나(6602) 박\*현(7707) 정\*수(5408)  
김\*철(4234) 김\*호(5420) 백\*연(0042) 류\*삼(1014) 배\*임(7562)

# 우리말 풀기



《심표, 마침표.》 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동안 ‘우리말 풀기’를 사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8월부터는 더 새롭고 재미있는 독자 행사를 선보일 예정이니 기대 많이 해 주시고요,  
 마지막 ‘우리말 풀기’도 놓치지 마세요!

## 문제 1

이들 어미의 공통점은 모두 문장이었던 말을 명사처럼, 관형사처럼, 부사처럼 쓰게 해 준 것이다. 그래서 이들을 모두 ‘□□’어미라고 한다. ‘□□’이란 성격을 바꾸어 준다는 뜻이다.

단서 쉽게 읽는 문법 용어

## 문제 2

안전하게 더위를 피하는 ‘□’에는 집만한 ‘□’가 없겠지요? ‘□’ 띄어쓰기를 헛갈려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를 바르게 띄어 쓰려면 의존 명사인지, 어미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단서 실전 띄어쓰기

## 문제 3

이번 훈령에서는 번역대상인 ‘□□□□□□□□’를 분석한 결과를 번역해 활용하고, 영어, 중국어, 일본어 3개 국어의 특성별로 분야별 번역방식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서 국어원 소식

## 문제 4

‘□□□□’은 나를 온전히 채우고, 다음을 힘차게 나아가는데 꼭 필요한 시간이에요. ‘□□□□’은 “갭이어”를 다듬은 우리말로, ‘학업이나 직장 생활을 잠시 중단하고, 여행이나 봉사 활동 등 자아를 성찰하고 진로를 탐색하는 시간’을 뜻합니다.

단서 우리말 다듬기

## 문제 5

우선 새로운 단어가 생기고 말이 변화해요. 사전도 변하죠.  
새로운 말을 사전에 추가하고, 옛것은 오늘에  
맞게 뜻을 수정·보완도 해요. 예전에는 뜻풀이랑 대응어가  
중요했다면 지금은 '□□'가 중요해졌죠.

단서 우리말, 그리고 사람

### ·참여 방법

1. “우리말 풀기 참여하기” 를 눌러 주세요.
2. 문제를 풀고, 답을 적어 주세요.
3. 응모자의 이름과 연락처, 수신 동의(필수)를 입력해 주세요.
4. ‘제출하기’를 누르면 끝!

### ·응모기간

2020. 7. 21.~2020. 8. 3.

### ·당첨자 발표

개인별로 알리고 “심표, 마침표.” 8월 호에 공고함

### ·선물

당첨자 열 분께는 음료 교환권을 드립니다.



### 2020년 6월 호 우리말 달인 당첨자

조\*부(4615) 허\*호(2333) 이\*나(6602) 박\*현(7707) 정\*수(5408)  
김\*철(4234) 김\*호(5420) 백\*연(0042) 류\*삼(1014) 배\*임(7562)